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머리 맞대

도, 준비상황보고회서 체육시설 개·보수·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 논의

전북도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10월 12~18일)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0월 25~29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6일 전북도청에서 2018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준비상황보고회를 열었다.

준비상황보고회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여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장애인)체전을 선수·국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관광체전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전북도, 시·군, 체

육회 관계자, 전북도교육청, 도경찰청) 관계자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집행위원회 심의부 별로 체육시설 개·보수, 경기장주변 및 시가지 환경정비, 선수단 및 임원 수송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토론했다.

특히, 지난 2월 주 개최지인 익산에서 확대간부회의 이후 처음으로 전국체전을 6개월여 앞두고 전 집행위

원을 대상으로 협업과제별로 협업토론을 함으로써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큰 보고회였다는 평이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성공개회 준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전북도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새롭게 변화된 도민의 자력을 대내·외에 알리고 전북의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하므로, 각종 경기장시설을 개선하여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힘써줄것과

대회·행사장 홍보 및 숙박·교통·경기장주변 환경정비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통해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기장, 편의시설 등 동선에 따라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2016년부터 총사업비 63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해 익산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52개소에 대하여 신축 및 개보수(신설 2, 개보수 50)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공무원에게 상습 성추행 당했다”

남원 40대 여성 농장주 “작년 3월 차 안에서 허벅지 사이 손 집어넣어... 잠자리까지 요구” 주장 50대 공무원, 강제추행 혐의 조사서 강력 부인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농민의 주장이 나왔다.

남원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46, 여)씨는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 소속 공무원 B(52)씨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농민 A씨는 “지난해 3월 공무원 B씨는 차 안에서 내 가슴을 만졌고 6월에는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며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항하면 앞으로 보조금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B씨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와 술을 마셨고 집에 갈 때는 나에게 운전을 시키고 모든 성추행은 그 차 안에서 이뤄졌다”며 “잠자리까지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4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조사중에 있다.

B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기자



잰버리 성공 기원

전북도내 청소년 대표 기관·단체들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기원을 위해 26일 송하진 도지사, 김운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양해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원장, 김경희 전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장, 김정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북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청소년기관·단체 릴레이협약식을 체결했다.

“내달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시 공채 한시 면제”

전북도, 도내 자동차 5개사 지역본부장과 간담회

전북도는 26일 자동차 5개사 지역본부, 전북 공채판매 은행총괄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시 전북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 면제 및 인하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홍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또한 현대, 기아, 한국GM 지역본부장 및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전북지역 영업점대표, 공채판매 총괄점인

농협,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공채의 한시적 면제 및 인하에 대한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금년 채권의 한시적 면제·인하가 각 관계기관의 영업점, 지점 등에 홍보되어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채권 한시 면제 및 인하는 자

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적용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4~6%) 및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2~5%)은 전액 면제 한다.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10%)의 경우에도 매입의무를 50% 인하여 취득세과표의 5%만 매입하면 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현 취득세과표의 0~1.5%) 및 이전등록(현 취득세과표의 0~0.75%)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인하 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예산, 지방교부세 등 자부채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자금수요와 여유자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에도 채권 한시면제 또는 인하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임대로 인상률 2년동안 5% 제한

평화당 정동영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임대료 인상을 5% 제한(2년), 계약갱신권을 1회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상을 상한제를 비롯하여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정한 조건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갱신권 등이 포함됐다.

참고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초 민주평화당 당론 2호 발의법안으로 이미 결정되었던 법안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릴 수 있게 허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적 최고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입주

민들과 오랜 갈등은 빚어온 바 있다.

정 의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소득의 1/3을 주거비에 쓰고, 1분위 저소득층과 청년 임차기구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에 쓴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년 오르는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집 없는 서민들, 특히 청년들은 정상적인 저축을 할 수 없게 되고, 무주택 기적이 길어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전 대표 측 반대로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었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화당을 창당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26일부터 공공기관·대학교·단체·모임 등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감 선거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고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참여·소통형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어디든지 강연을 원하는 곳에는 선거연수원 전문 강사가 찾아가 강연을 펼치며, 주제는 ‘소소한 참여 행복한 동네민주주의’로, 생활 속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강연 신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civicedu.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031-296-98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